

# 『詩經』·「螽斯」의 활용양상에 대해서

－ 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이상봉\*

- 
1. 들어가는 말
  2. 자손의 번성을 비유: 각 문체에서의 활용양상
  3. 왕실의 후계 문제와 折受 문제에서 활용
  4. 나오는 말
- 

## ■ 국문요약

이 논문은 『詩經』 「周南」의 다섯 번째 작품인 「螽斯」를 우리 문인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사」는 주희로부터 “后妃가妬忌하지 않아 자손이 많았으므로 여러 쫓들이 螽斯가 한 곳에 떼를 지어 살면서 조화롭게 모여 자손이 많은 것을 가지고 비유해서 이러한 德이 있으면 이러한 福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문인들은 주희의 이 같은 평가를 수용해서 주로 ‘자손의 번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사」를 활용했다. 문체별로 보면 상소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冊文이나 敎書類·碑誌類·詩類 등의 순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사」는 ‘자손의 번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의 후계 문제와 折受 문제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활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명종·경종·영조·정조 연간에 「중사」를 활용해서 후계 문제를 논의한 여

---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 E-mail: krishrama@daum.net

러 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실의 왕자와 공주들이 私宮을 짓고 나가서 살 때에 俸祿으로 土地 등을 때어 주는 일인 折受는 그로 인해 民田을 침탈하는 일이 잦았으므로 숙종 때부터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숙종과 영조 연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중사」가 활용된 예들이 있었다.

**주제어** : 시경, 중사, 주남, 활용양상, 경학

## 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詩經』 「周南」의 다섯 번째 작품인 「螽斯」를 우리 문인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시경』의 개별 작품들이 우리 문인들에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정리하고 있는데 이 논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시경』과 관련해서는 학위논문만 82건 이상이고, 천 건이 넘는 소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들 중 최근의 연구 주제들만 살펴보면, 박사논문으로는 「『本草綱目』의 『詩經』 引用에 관한 研究」<sup>1)</sup>와 「『詩經』 愛情詩 研究」<sup>2)</sup>가 발표되었고 소논문으로는 「계곡 장유 시론 연구 -『시경』의 영향을 중심으로-」<sup>3)</sup> · 「『東文選』 漢詩對『詩經』 意象의 借用與創新」<sup>4)</sup> · 「柳僖 詩經論에 반영된 해석과 접근의 재구조화」<sup>5)</sup> · 「미수 허목의 시경관 연구」<sup>6)</sup> · 「『詩經』 「卷耳」의 활용양상에 대해서 -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

1) 김민정(2021) 참조.

2) 박재희(2021) 참조.

3) 정향훈(2022) 참조.

4) 진교초 · 윤윤진(2022) 참조.

5) 김수경(2022a) 참조.

6) 차영익(2022) 참조.

로-」7) · 「『시경』 「칠월」의 서술 구조와 교술적 속성」8) · 「『詩經』 속 女性의 地位에 관한 小考」9) · 「『詩經』 「樛木」의 활용양상과 몇 가지 논의에 대해서-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10) · 「瓶窩 李衡祥 詩經 독법의 확장성과 다층성」11) · 「中庸 미학에서 生生 미학으로 -『시경』을 중심으로-」12) · 「혜강 현언시에 나타난 飛鳥 意象 표현의 化用 고찰—『시경』과 『초사』의 화용을 중심으로」13) 등이 발표되었다.

『시경』과 관련해서 2021년에는 10편의 소논문이 생산되었고, 2022년에는 11월 현재에도 11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시경』은 한시의 바깥인 만큼 지금도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경』의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먼저 「한국에서 시경을 받아들인 역사를 살핌: 서지학의 방법을 중심으로」를 거론할 수 있다.14) 이 논문은 『시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삼국사기』 · 『고려사』 · 『조선왕조실록』 및 근현대의 서적까지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시경』을 삼국시대부터 공부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시경』을 관리의 등용 · 과거제도 · 경연 등에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원호는 박사학위논문인 「『朝鮮王朝實錄』의 『詩經』活用例 연구」15)에서 『시경』을 100회 이상 인용한 군주들을 정리하고 『조선왕조실

7) 이상봉 · 유영옥(2022a) 참조.

8) 이육진(2022) 참조.

9) 송하나(2022) 참조.

10) 이상봉 · 유영옥(2022b) 참조.

11) 김수경(2022b) 참조.

12) 신정근(2022) 참조.

13) 김진희(2022) 참조.

14) 이상봉(1999) 참조.

15) 정원호(2013) 참조.

록』에서 50회 이상 인용된 『시경』의 작품들도 정리해서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시경』의 작품들을 政事·行事·學問·生活·祭禮·科擧·妃嬪·人物의 주제로 나누어서 각각 얼마나 인용되었는지 정리했다.

이 논문은 『시경』의 작품들이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주제에 따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경』의 개별 작품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시경』의 개별 작품들이 활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시경』 國風의 첫 작품인 「關雎」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관저」와 관련된 실록과 문집의 기록들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 문인들은 「관저」의 내용을 ‘후비의 덕’이나 ‘왕실의 교화’로 인식하면서 敎命文·表文·箋文·상소문 등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 문인들의 「관저」에 대한 논의 중 두드러진 것은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의 해석문제와 「관저」의 화자가 누구인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丁若鏞(1762~1836)은 ‘荇菜流芼’가 제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哀而不傷’은 바로 이 점을 가리킨다고 주장했고, 李瀾(1681~1763)은 ‘樂而不淫’을 방안에서 연주하는 琴瑟을 이용해서 성욕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절제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문인과 왕들이 「관저」의 화자에 대해서는 궁인을 지목했다. 더러는 문왕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安鼎福(1712~1791)은 이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했다.<sup>16)</sup>

다음으로 小雅의 첫 작품인 「鹿鳴」의 활용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녹명」은 산문 문체 중 表箋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인용양상은 주로 ‘이번 연회는 「녹명」과 같이 아름다운

---

16) 이상봉(2020a) 참조.

잔치'라는 점을 강조할 때 사용되고 있었다. 또는 자신은 「녹명」시와 같은 아름다운 잔치의 손님이나 신하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겸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 외에 序跋에서는 대체로 「녹명」을 가지고 대과나 鄉試에 급제한 것을 비유한 내용들이 많았다.<sup>17)</sup>

이어 필자는 周南의 「卷耳」에 대한 우리 문인들의 활용양상을 분류해 보았다. 『詩集傳』 등에서 「권이」는 「關雎」·「葛覃」과 마찬가지로 후비의 덕을 노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권이」도 「關雎」·「葛覃」처럼 왕후를 대상으로 한 시책문 등에서 왕비의 덕을 칭송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 「권이」를 情人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李睟光(1563~1628)·黃景源(1709~1787) 등은 「권이」의 시어를 사용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돌아가신 분에 대한 아픔 등을 표현했다. 또한 「권이」의 화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林泳(1649~1696)과 정조(1752~1800)는 「권이」의 내용을 모두 탁언으로 보았다. 이익도 「권이」가 탁언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권이」의 화자를 후비가 아닌 '家人'으로 보았다.<sup>18)</sup>

우리 문인들은 「樛木」도 '후비의 덕'을 칭송했다는 관점에서 주로 활용했다. 주희는 「關雎」·「葛覃」·「卷耳」·「樛木」·「螽斯」 모두 '후비의 덕'을 칭송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었다.<sup>19)</sup> 따라서 주희의 학설을 따르던 당시 우리 문인들은 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7) 이상봉(2020b) 참조.

18) 이상봉·유영옥(2022a) 참조.

19) 朱熹 著, 紀昀 等纂, 『詩傳大全』 卷1, “按此篇首五詩, 皆言后妃之德, 關雎舉其全體而言也, 葛覃卷耳言其志行之在己, 樛木螽斯美其德惠之及人, 皆指其一事而言也.” 문연각 사고전서 전자판 참고.

그래서 왕비의 덕성을 찬양하거나 왕비가 문왕의 후비처럼 덕스러워 지기를 바랄 때 우리 문인들은 「규목」의 내용을 활용했다. 왕비에 대한 찬양이나 왕비의 덕성에 대한 기원을 담기에는 冊文·敎文·表箋·挽詞·誌文 등이 적당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와 산문보다는 왕비를 책봉하는 옥책문이나 교문·표전, 돌아가신 왕비를 추모하는 애책문이나 만사·지문 등에서 「규목」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sup>20)</sup>

이제 우리 문인들이 「종사」를 활용한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종사」의 내용부터 상기해보자.

螽斯羽 誦誦兮      종사<sup>21)</sup>의 날개가, 쓰룩쓰룩 수없이 나는 소리  
宜爾子孫 振振兮      그대 자손 화목해서, 대대로 번성하리라.

螽斯羽 薨薨兮      종사의 날개가, 때 지어 붕붕거리는 소리  
宜爾子孫 繩繩兮      그대 자손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螽斯羽 揖揖兮      종사의 날개가, 무수히 모여드는 소리  
宜爾子孫 蟄蟄兮      그대 자손이 화락하게 모이리라.<sup>22)</sup>

주희(1130~1200)는 「종사」의 내용에 대해 “后妃가 妬忌하지 않아 자손이 많았으므로 여러 妾들이 螽斯가 한 곳에 떼를 지어 살면서 조화롭게 모여 자손이 많은 것을 가지고 비유해서 이러한 德이 있으면 이러한 福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것이다.”<sup>23)</sup>라고 풀이했다.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 문인들은 주희의 이런 견해를 그

20) 이상봉·유영옥(2022b) 참조.

21) 螽斯는 보통 ‘메뚜기’ 또는 ‘여치’로 번역된다.

22) 번역은 정상홍(2019), 110~111면을 참고했다.

23) 朱熹 著, 紀昀 等纂, 『詩傳大全』 卷1, “后妃不妬忌, 而子孫衆多, 故衆妾, 以螽斯之群處, 和集而子孫衆多, 比之言其有是德, 而宜有是福也” 문연각 사고전서 전자판 참고.

대로 수용해서 여러 문체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것은 왕실의 후계 문제와 折受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왕실의 후계 문제와 왕족들을 위한 折受 문제는 다소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말을 꺼내면서 자손의 번성을 의미하는 「중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용례를 3장에서 살펴보겠다.

## 2. 자손의 번성을 비유: 각 문체에서의 활용양상

『고려사』 열전의 「인종 후비 공예태후 임씨」조에 “「중사」처럼 아들이 많이 낳았으니, 이 또한 그대의 현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螽斯多子, 亦由爾賢〕”라는 구절이 있다.<sup>24)</sup> 이는 「중사」에 대한 주희의 해설과 같이 공예태후 임씨(1109~1183)가 현명했기 때문에 인종에게 아들이 많았다는 말이다. 이처럼 우리 문인들은 「중사」를 활용해서 ‘자손의 번성’을 비유한 경우가 많았는데, 문체별로 그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 1) 상소문

「중사」가 가장 자주 보이는 문체는 상소문이다.<sup>25)</sup> 고려시대 승려 釋

24) 『고려사』 卷88, 「인종 후비 공예태후 임씨」 중 ‘임원후의 딸이 인종과 혼인하여 왕자를 낳고 왕비로 책봉되다.’ “八年, 生大寧侯璟, 王又遣使下詔曰, “汝以僂天之資, 居儷極之貴, 樂關雎之窈窕, 服卷耳之勤勞, 乃符帶韜之祥, 載見弄璋之慶, 歎嘉無已, 恩禮當優.” 仍賜禮物. 九年, 生明宗, 王又遣使下詔曰, “茲爾任氏, 典予內職, 正位中宮, 震索得男, 既主其器, 螽斯多子, 亦由爾賢. 謂茲擢熊之祥, 協彼燕媾之后, 宜膺寵數, 永保洪休.” ”고려시대 史料 DATABASE(<https://db.history.go.kr/>) 참조.

25) 螽斯에 대해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를 검색하면 총 720건이 검색된다. 이 중 번역이 되어있는 고전번역서 전체 80건, 조선왕조실록 전체 60건, 신역 조선왕조실록 전체 1건, 승정원일기 전체 25건, 일성록 전체 3건, 각주정보

息影庵이 원자의 탄생을 축원하며 올린 상소문을 보자.

일천 세계[千刹]에는 부처께서 못물 속에 있는 달[潭月]의 광명을 나누시므로, 일만 기류에 감응이 통하며, 兩宮께서 渚虹의 경사를 모으니, 온 나라가 모두 기뻐합니다. 삼가 생각하니, 주상께서는 백대의 龍孫으로서 만승천자의 부마가 되셨으니, 하늘의 마음과 통함이 있어서 곧 꿈의 꿈[熊夢]인 상서를 이루었고, 조상의 덕[世德]에 잘못됨이 없어서, 조금 전에 燕禩의 보답을 보았으니, 金枝가 더욱 뻗어나고 木運이 길이 연장되겠습니다. 엿드려 생각하니, 문명한 시대에 나서, 직책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항상 일백 아들을 두시도록 소원을 세워서 어린 정성을 다 바쳤더니, 일천 성현의 돌보임을 입어서 총명한 후사를 탄생하셨다 하니, 멀리서 길한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을 어이 다 하리까. 이에 좋은 날을 받아서 장수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엿드려 원합니다. 왕비께서 덕을 같이 하시고, 태자께서 아름다운 복을 계승하소서. 龍顏의 화목한 빛은 천추를 白日같이 빛내고, 螽斯의 誥誥한 아름다움[螽斯誥誥之美]은 마침내 만세토록 淸風에 전하여지이다.<sup>26)</sup>

승려 釋息影庵은 원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자의 장수를 축원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는 渚虹·燕禩 등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여러 전고들을 쓰면서 원자의 장수를 축원했다. 그리고 상소문의 끝부분에서 “螽斯의 誥誥한 아름다움[螽斯誥誥之美]”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중사」가 지닌 자손의 번성이라는 의미와 첩들에 대해 질투하지 않는 후비

---

112건을 주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상소문은 이 중 23건으로 집계되었다.  
26) 徐居正 外, 『東文選』 卷111, 「誕生元子祝上疏」, “千刹分潭月之輝, 萬機交感, 兩宮集渚虹之慶, 一國舉欣, 恭惟主上, 以百代龍孫, 爲萬乘駙馬, 天心有賚, 肇臻熊夢之祥, 世德無愆, 俄見燕禩之報, 會金枝之寔衍, 宜木運之遐延, 伏念生遇文明, 職存福利, 常抱百男之願, 傾倒愚衷, 頃蒙千聖之恩, 挺生哲嗣, 遙承吉語, 曷極權情, 故茲涓日之良, 予以祝年之永, 伏願坤儀配德, 震位承休, 龍顏穆穆之光, 並照於千秋白日, 螽斯誥誥之美, 終傳於萬歲淸風.”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참조.

의 덕성을 함께 찬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선 태종 14년(1414)에는 의정부에서 왕손의 직급을 정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이제 우리 주상 전하가 큰 대통을 이어받으니, 「螽斯」의 번성과 「麟趾」의 慶事가 마땅히 周나라 왕실과 더불어 나란히 빛날 것입니다.”라며 왕실의 자손이 번성하기를 축원하기도 했고,<sup>27)</sup> 영조 5년(1729)에는 司諫 李世璣(1669~1749)이 직임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새해에 바라는 바는 오직 「麟趾」와 「螽斯」의 경사가 나서 자손이 많이 태어나는 것입니다.”라며 영조의 후사가 번성하기를 소망하기도 했다.<sup>28)</sup>

또 정조 4년(1780)에는 校理 徐鼎修(?~1804)가 선정을 베풀기 위한 8가지 조목을 상소하면서 그 두 번째 항목에서 “춘추가 점점 많아지는데 오히려 「중사」의 경사를 늦추십니다.”라며 정조의 후사를 염려하기도 했고,<sup>29)</sup> 고종 12년(1875)에는 左參贊 朴齊寅(1818~1884)이 資級을 회수해 주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최근 태어난 대군의 출생을 축원하면서 “대소 群情이 모두 기뻐하며 축원 드리는 것은 대개 「중사」와 「인지」의 노래가 오늘날 다시 일어나게 된 때문이니, 아, 거룩합니다.”라고 했다.<sup>30)</sup>

27) 태종 14년 갑오(1414) 1월 16일(신묘), 의정부에서 건의한 대군·군·원윤·정윤·부원윤·부정윤을 봉하는 법식을 승인하다. “今我主上殿下繼承丕緒, 螽斯之盛·麟趾之慶, 當與周室而並美矣.”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참조. 이후 따로 표시하지 않은 각주의 실록자료는 여기서 가져왔다.

28) 영조 5년 기유(1729) 1월 1일(병오), 백성을 구제하는 방도를 강구하도록 묘당에 신칙하고 자질 부족으로 직임을 체차해 줄 것을 청하는 사간 이세진의 상소. “新年所祝, 惟是麟趾螽斯之慶, 振振而兢兢也.”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참조.

29) 정조 4년 경자(1780) 3월 8일(정해), 서정수가 선정을 베풀기 위한 8가지 조목을 상소하다. “春秋漸晚, 尙遲螽斯之慶.”

30) 고종 12년 을해(1875) 4월 16일(임오), 자질이 부족하므로 자급을 회수해 주기를 청하는 좌참찬 박제인의 상소. “大小群情, 莫不拊祝, 皆以爲螽斯麟趾之詠, 復作於今日也, 猗歟盛哉.”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참조.

## 2) 冊文이나 敎書類

「중사」가 상소문 다음으로 많이 활용된 문체는 竹冊文·哀冊文·謚冊文 등의 책문들과 敎書·敎命·傳敎 등의 문체였다.<sup>31)</sup> 이들 문체들은 모두 임금의 뜻을 드러내는 글들이다. 이런 문체들에서 「중사」가 활용된 양상을 살펴보자.

왕은 이르노라. 짐은 천명을 받아 왕위를 이어 지킨다. (중략) 某는 본디 甲族으로서, 나면서부터 賢才가 있었다. 鳳凰의 날이여, 진정 哲人の 배필이며, 螽斯의 날개여, 마땅히 여러 아들이 남이로다. 이에 과연 沙麓의 상서에 부합되어, 關雎의 淑德을 낳았다. 여러 번 玉衣의 이상한 꿈이 나타나더니, 마침내 金屋의 화려한 데 올랐었다. 자애로운 은혜를 받아서 외람히 보위에 오른 것을 생각하니, 國母로서의 봉양이 생전에 미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우며, 渭陽의 생각은 오히려 돌아간 뒤에도 잊기 어렵다. 하물며 晉人の 의논에는 杜褒를 태상황에 건주었으며, 魏志에는 明帝가 그 외조모를 중히 여겼다고 전하는 데이겠는가. 옛적에도 이리하였거니와 지금인들 어찌 가볍게 하겠는가. 감히 풍성한 의식을 갖추어서 후한 뜻을 표시한다. 내 마음이 특히 극진한 것이 아니라, 公義가 그래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아, 덕에는 반드시 깊음이 있으므로 매양 은전을 더하는 것이다. 가득해도 넘지 말아서 마땅히 길이 榮名을 누리라. 조심해서 나의 기대에 부응하라. 운운.<sup>32)</sup>

31) 한국고전종합DB에서 螽斯로 검색해서 竹冊文·哀冊文·謚冊文 등의 용례 9건을 발견했고, 敎書·敎命·傳敎 등의 용례 7건을 찾았다.

32) 徐居正 外, 『東文選』, 卷29, 「竹冊文」, “王若曰. (中略) 某本惟甲族, 生有賢才. 鳳凰于飛, 允矣哲人之配, 螽斯之羽, 宜其衆子之興. 果符沙麓之嘉祥, 誕育河洲之淑德. 屢顯玉衣之異, 終升金屋之華. 念受慈恩, 獲叨寶位, 天下之養, 恨不逮於生前, 渭陽之思, 顧難忘於沒後. 況晉人立議杜褒, 比於大上皇, 魏志所傳明帝, 重其外祖母. 在昔如此, 于今可輕. 敢備縹儀, 以將厚意. 非予心之特至, 爲公義之攸宜. 於戲, 德必有酬, 故每加於恩典. 滿而不溢, 宜長享於榮名. 厥惟敬哉, 副我眷注云云.”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참조.

고려시대 鄭義가 왕을 위해 지은 죽책문이다. 고려 원종(1219~1274)이 세자빈을 책봉한 글로 추정되는 이 글은 「卷阿」·「螽斯」·「關雎」·「渭陽」 등 『시경』의 여러 작품들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 글은 沙麓·玉衣·金屋 등 왕비의 출생이나 왕의 배필에 관한 고사 등을 이용해서 새로 맞이하는 세자빈의 앞날을 당부하고 있다. 이 중 “螽斯의 날개여, 마땅히 여러 아들이 남이로다.[螽斯之羽, 宜其衆子之興]”에서 「중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 세자빈에게 많은 후사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종은 1429년에 휘빈 김씨의 廢嬪에 대해 하교하면서 “「중사」의 祥瑞를 불러들일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했고,<sup>33)</sup> 李敏敍(1633~1688)는 인경왕후(1661~1680)를 추모하는 哀冊文에서 “「중사」의 경사 인색함이 애통하니[痛螽斯之嗇慶]”라며 자손도 없이 20세에 요절한 인경왕후를 안타까워하기도 했다.<sup>34)</sup>

宋相琦(1657~1723)는 「王世子嬪諡冊文」에서 “嬪하고 殮하는데 친히 임하지 못하니 더욱 아픈 마음을 억누르기 어렵다. 더구나 자손 변경의 경사도 얻지 못했으니 세자가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며<sup>35)</sup> 경종(1688~1724)의 세자시절 빈이었던 端懿嬪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고, 고종은 1865년에 “이로부터 「麟趾」와 「螽斯」의 詩가 유독 周나라에서만 아름다움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며 종친부의 번영을 기원하기도 했다.<sup>36)</sup>

33) 세종 11년 기유(1429) 7월 20일(갑자), 근정전에서 임금이 휘빈 김씨의 폐빈에 대해 하교하다. “今金氏爲世子嬪, 曾未數年, 而其運謀, 敢爲妖邪, 已至如是, 尙何望其無妬忌之心, 著肅雍之德, 成「鷄鳴」至三之告, 召「螽斯」, 則百之祥乎?”

34) 李敏敍, 『西河集』 卷10, 「仁敬王妃哀冊文」, 한국문집총간 144, 民族文化推進會, 1995, 181면.

35) 宋相琦, 『玉吾齋集』 卷12, 「王世子嬪諡冊文」, 한국문집총간 171, 民族文化推進會, 1996, 447면. “殯殮莫親, 益覺病懷之難抑. 矧惟螽斯之嗇慶, 曷堪鶴禁之纏悲.”

36) 고종 2년 을축(1865) 2월 20일(병술), 종친부의 편액을 친히 써서 내리겠다는 전

### 3) 碑誌類

비지류에서의 용례는 앞서 정리한 애책문이나 시책문과 내용상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예들을 거론할 수 있다. 徐居正(1420~1488)은 西原府院君의 묘지명에서 그의 딸을 칭찬하며 “「중사」의 祥瑞에 이미 들어맞아, 자손들이 있었고”라고 했고,<sup>37)</sup> 李承召(1422~1484)는 세종(1397~1450)의 묘지명에서 “능히 「관저」의 교화와 「중사」의 경사를 이루어 本孫과 支孫이 백대토록 전해지고”라고 했다.<sup>38)</sup>

黃俊良(1517~1563)은 가전체소설인 「蜂王臺銘」에서 “기쁨이 「중사」에 넘치고, 경사는 「湛露」보다 깊네.”라며<sup>39)</sup> 소설 속 왕실의 자손이 번성하고 왕실의 연회가 성대함을 찬양했고, 李廷龜(1564~1635)는 「宗室湖川君神道碑銘」에서 “이 도리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었으니, 그대 자손 화목해서 대대로 번성하리라.”고 했다.<sup>40)</sup>

柳夢寅(1559~1623)은 「資憲大夫漢城府判尹崔公墓碣銘」에서 “참으로 螽斯처럼 많은 자손을 길렀고”라고 했고<sup>41)</sup> 金壽恒(1629~1689)은 「義昌君神道碑銘并序」에서 “칭송 드높고 자손 번성했으니, 많고 많은 여러 支孫들이여.”라고 했으며<sup>42)</sup> 李觀命(1661~1733)은 「右議政趙公墓

---

교. “從此麟趾螽斯之詩, 不獨專美於周家.”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참조.

37) 徐居正, 『四佳文集補遺』 卷1, 「左議政西原府院君謚襄節韓公墓誌銘并序」, 한국문집총간 11, 民族文化推進會, 1988, 283면. “已叶螽斯之祥, 又有子有孫.”

38) 李承召, 『三灘集』 卷14, 「世宗莊憲大王遷陵誌石文」, 한국문집총간 11, 民族文化推進會, 1988, 510면. “故以能致關雎之化, 螽斯之慶, 本支百世.”

39) 黃俊良, 『錦溪集外集』 卷8, 「蜂王臺銘」, 한국문집총간 37, 民族文化推進會, 1988, 189면. “喜溢螽斯, 慶深湛露.”

40) 李廷龜, 『月沙集』 卷6, 「宗室湖川君神道碑銘并序」, 한국문집총간 70, 民族文化推進會, 1991, 555면. “持是道以遺後, 宜爾子孫振振兮.”

41) 柳夢寅, 『於于集』 卷5, 「資憲大夫漢城府判尹崔公(俊海)墓碣銘(并序)」, 한국문집총간 63, 民族文化推進會, 1991, 567면. “信螽羽之齊毓”

42) 金壽恒, 『文谷集』 卷18, 「義昌君神道碑銘并序」, 한국문집총간 133, 民族文化推進會,

誌銘에서 “「중사」의 경사가 더더, 한가로울 때도 깊이 염려하더니”라며<sup>43)</sup> 경종(1688~1724)에게 후사가 없어 고뇌하던 우의정 조태채(1660~1722)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했다.

#### 4) 詩類

「중사」가 가진 ‘자손의 번성’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중사」는 상소문이나 책문·교문·비지류 등에서 자주 활용되었다. 하지만 왕실에 경사가 있거나 왕실과 관련해서 시를 지을 때에도 우리 문인들은 「중사」를 인용하곤 했다.

少日聰明記問多	젊은 날엔 총명하고 기문지학 많아서
叩之流出似懸河	묻기만 하면 강물 쏟듯 줄줄 나왔었는데
自憐衰病心無力	가련해라. 늙고 병들어 마음도 힘이 없고
欲辨形聲字盡訛	형성을 분별할래도 글자 모두 잘못되네.
細嚼盤飧堆玉食	밥상 그득한 좋은 음식 자갈하게 씹어 먹고
再傾宮醞灑金波	넘실대는 宮中の 술 다시 기울이니
半酣身世眞如夢	반쯤 거나한 이 신세가 진정 꿈만 같아서
願繼螽斯稼木歌	「중사」·「규목」의 노래를 이어 부르고 싶네. <sup>44)</sup>

李穡(1328~1396)이 고려 우왕(1365~1389)의 비였던 謹妃 李氏의 생신을 맞아 지은 시 중 두 번째 작품이다. 시의 내용을 보면 근비의 생신을 맞아 궁중의 음식과 술로 배를 채웠으면서도 예전처럼 일필휘지로 시를 짓지 못하는 자신의 노쇠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지만 마지

1994, 340면. “頌螽斯羽, 振振諸支.”

43) 李觀命, 『屏山集』 卷14, 「右議政趙公墓誌銘」, 한국문집총간 177, 民族文化推進會, 1996, 289면. “螽斯慶遲, 燕居深念.”

44) 李穡, 『牧隱集』 卷21, 「明日又吟」, 한국문집총간 4, 民族文化推進會, 1989, 272면.

막 구절에서는 자손의 번성을 상징하는 「중사」와 후비와 첩들의 화합을 상징하는 「규목」을 언급하며 근비의 덕성을 찬양하고 있다.

이 외에도 徐居正(1420~1488)은 中宮胎室證考使兼安胎의 명을 받고 醴泉 주변을 여러 날을 巡歷하다가 “옛날 왕비가 잉태되고 탄생한 상서가 있어, 태실을 봉안하니 상서가 더욱 길어지리. 「麟趾」·「중사」의 경사가 바야흐로 일어나니, 이 고을이 마침내 제왕의 고을이 되었도다.”라는 시를 짓기도 했다.<sup>45)</sup>

李承召(1422~1484)는 어느 날 임금의 병풍에 넣을 시를 짓게 되었다. 그 중 「周文王后妃」라는 주제로 시를 지으면서 “「중사」 경사 도타워서 낳은 아들 백 명이네.”라고 했다.<sup>46)</sup> 이는 조선의 왕실에도 주문왕의 왕실처럼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이승소의 기원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종직(1431~1492)은 임금의 명을 받아 「癸卯元日迎祥詩」를 지으면서 “「규목」의 은혜는 항상 널리 미치고, 「중사」의 복은 다시 훌륭하다.”라고 했다.<sup>47)</sup> 이 시의 주석에 “이상은 중궁에 올린 시다.”라고 되어 있다. 김종직은 어명을 받아 중궁에 올릴 시를 지으면서 중궁이 「규목」의 내용처럼 여러 후궁들과 잘 화합하고 「중사」의 내용처럼 많은 자손을 생산하기를 염원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사」가 여러 문체에서 활용된 용례를 살펴보았다. 인용한

45) 徐居正, 『四佳詩集補遺』卷3, 「戊戌秋九月, 居正受中宮胎室證考使兼安胎之命, 卜地于醴泉之龍門洞. 未幾, 仍命臣居正, 爲本道巡察使, 歷諸州, 五旬之間, 四到醴泉, 今又宿多仁縣. 太守陳公(克忠), 少年執友, 鄉人孫公(次綱), 戊午生員同年也, 相與話懷, 仍成數絕, 非以爲詩, 聊志歲月云耳.」, 한국문집총간 11, 民族文化推進會, 1988, 189면. “當年載夙倪天祥, 胎室仍安瑞更長. 麟趾螽斯方有慶, 此鄉終作帝王鄉.”

46) 李承召, 『三灘集』卷6, 「又題御屏詩」, 한국문집총간 11, 民族文化推進會, 1988, 436면. “慶篤螽斯則百男”

47) 金宗直, 『佔畢齋集』卷17, 「癸卯元日迎祥詩」, 한국문집총간 12, 民族文化推進會, 1988, 340면. “穆木恩常逮, 螽斯福更嘉.”

용례 이외에 挽詞·序跋에서도 「종사」를 활용한 경우가 보이고, 上梁文·祭文·筭子·制書·詔書·咨文·箋文 등에서도 「종사」를 활용해서 ‘자손의 번성’을 비유한 경우를 몇 건 정도 찾을 수 있다.

### 3. 왕실의 후계 문제와 折受 문제에서 활용

지금까지 여러 문체들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종사」는 대부분 ‘자손의 번성’이라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상소문과 실록류 기록을 보면 「종사」가 가진 ‘자손의 번성’이라는 의미를 완곡하게 사용해서 왕실의 후계 문제나 折受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경우가 많았다. 먼저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종사」를 이용한 경우부터 살펴보자.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시니 틀림없이 「종사」의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자 세우기(建儲)를 미리 하지 않는 것은 어지러움의 근본입니다. 지난 가을에 옥체가 和氣를 잃자 인심이 허둥지둥하였으니 聖念이 여기에 미치시면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삼가 들으니 대신이 주청하여도 머물러 두고 어렵게 여기면서 결단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어떻게 漢成帝와 宋高宗은 그것을 잘했는데, 전하께서는 잘 하지 못하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聖慮가 深遠하시어 뒷날 처치하는 데 방해가 있을까 여겨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元良이 탄생하면 天命과 인심은 저절로 귀속할 곳이 있게 되며 미리 길렀던 사람은 스스로 물러날 것인데 무슨 방해가 있겠습니까?48)

48) 명종 21년 병인(1566) 4월 17일(무인) 2번째 기사. 풍덕 군수 이민각이 흥년에 백성을 구휼하는 방법을 상소하다. “恭惟殿下, 春秋鼎盛, 必有螽斯之慶. 然建儲不豫, 亂之本也. 去年秋玉體愆和, 人心遑遑, 聖念及此, 豈不寒心? 伏聞, 大臣有請, 而留難不斷, 夫豈漢成帝·宋高宗能之, 而殿下不能哉? 此必聖慮深遠, 爲後日處置有妨耳. 然元良誕降, 則天命人心, 自有所屬, 預養之人, 自當退處, 有何妨礙哉?”

명종 21년(1566) 4월, 풍덕 군수 李民覺(1535~?)은 흉년에 백성을 구휼하는 방법을 상소하면서 당시까지 세자를 정하지 않고 있던 명종(1534~1567)에게 建儲를 권하고 있다. 명종은 인순왕후와의 사이에서 순회세자를 낳았다. 하지만 순회세자가 1563년에 13세의 나이로 요절했는데도 세자의 공백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이민각이 위와 같은 상소문을 올린 것이었다.

이후로도 영의정 李浚慶(1499~1572)은 그해 윤10월에 “어찌 한창 나이에 끝내 「종사」의 경사가 없을까봐 이런 급급한 계획을 했었겠습니까?”라며 세자를 세울 것을 청했고,<sup>49)</sup> 배천의 생원 金澤도 “하물며 螽斯가 誦誦하고 麟趾가 振振한 상서가 없다면 더욱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며 후사의 문제를 상소했다.<sup>50)</sup>

나라에서 儲嗣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時任 대신으로 한강 밖에 있었던 사람마저 까마득히 알지 못했고 原任 卿宰로 처음에 불러서 나가지 않은 사람은 재차 부르지도 않고서 졸급하고 바쁘게 굴면서 조금도 國體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신은 이것이 무슨 舉措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중전(中壺)을 재차 맞이하고 약을 드시며 걱정하시고 계속 상중(諒闇)에 계시니 後嗣의 있고 없음을 아직 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하의 寶算이 한창 젊으시고 중전께서도 나이 겨우 笄年을 넘으셨으니 日後에 「종사」의 경사가 있기만을 온 나라 신민들은 크게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후자는 兩宮께서 병환이 있어 誕育에 지장이 있다고 말합니다만, 그렇다면 보호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醫藥에 정성을 다하여 최대한 힘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도 이에 생각이 미친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며, 결국은 즉위(卽祚)하신 원년에 갑자기 이러한 거조가 있게 되었으

49) 명종 21년 병인(1566) 윤 10월 15일(임인) 3번째 기사. 영의정 이준경이 상소하여, 후사를 세울 것 등을 청하다. “豈以方盛之年, 終無螽斯之慶, 而爲此急急之計耶?”

50) 명종 21년 병인(1566) 11월 16일(임신) 2번째 기사. 배천 생원 김택이 상소하여 후사의 문제를 아뢰다. “況螽斯無誦誦之祥, 麟趾無振振之瑞, 則尤不可以不汲汲也.”

니 이것이 어찌된 까닭입니까?<sup>51)</sup>

경종 1년(1721)에 柳鳳輝(1659~1727)가 올린 상소문이다. 후사가 없던 경종(1688~1724)은 즉위년에 이복동생인 연잉군(훗날 영조, 1694~1776)을 世弟로 책봉했다. 이에 대해 유봉휘는 경종과 중전의 젊은 나이를 거론하며 “「중사」의 경사가 있기만을 온 나라 신민들은 크게 바라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젊은 왕이 즉위년에 동생을 세제로 책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뒷날 영조 5년(1729) 2월, 黃燾라는 인물이 “전하께서 嗣服하신 초기에 正壺에 「중사」의 경사를 바람이 없지 않으셨건만 즉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群下의 건의를 允從하셨던 것도 또한 이에서 나온 것입니다.”라며 세자를 세울 것을 상소했다.<sup>52)</sup> 즉위 초부터 후사를 세우라는 건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상황은 경종 초와 비슷했다. 하지만 영조는 경종과는 달리 상소를 올린 황소와 이 상소와 관련된 인물들을 物故하고 定配했다.

정조(1752~1800)도 「중사」를 통해 후사에 관한 걱정의 말을 더러 들었다. 정조 2년(1778) 5월에 왕대비는 “아! 4백 년이 된 宗社의 의탁이 오직 主上의 몸 하나에 달려있는데, 춘추가 거의 30에 가까워졌는데도 지금까지 오히려 「중사」의 慶事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라며 嬪御를 간택하라고 명했다.<sup>53)</sup>

51) 경종 1년 신축(1721) 8월 23일(신사) 3번째 기사. 왕세제의 책정이 사리에 합당하지 않음을 아뢰는 행 사직 유봉휘의 상소. “國有建儲, 何等重大, 而時任大臣之在江外者, 漠然不知, 原任卿宰之初招不進者, 亦不更招, 猝遽忙急, 略無顧念國體之意, 臣未知此何舉措也. 惟我殿下, 再聘中壺, 嘗藥憂遑, 仍居諒闇, 嗣續有無, 姑無可論, 而殿下寶算方盛, 中壺年纔踰笄, 日後螽斯之慶, 此固舉國臣民之所翫望. 或者兩宮有疾患, 妨於誕育, 則保護之地, 固當竭誠醫藥, 靡不用極, 而未聞有念及此者. 乃於卽昨元年, 猝然有此舉, 此其故何哉?”

52) 영조 5년 기유(1729) 2월 28일(계묘) 6번째 기사. 인경문에 나아가 황소를 친국하다. 저사를 세울 것에 대한 황소의 상소문. “殿下嗣服之初, 非無有望於正壺螽斯之慶, 而卽昨未幾, 允從群下之所建議者, 亦出此也.”

정조 4년(1780) 2월에는 이조판서 金鍾秀(1728~1799)가 “아! 진하게서 춘추가 한창이신데도 아직 「중사」의 경사가 없으므로 온 나라의 모든 신민이 근심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가 같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名門에서 후궁을 간택하는 일을 반대한 洪國榮(1748~1781)을 귀양 보내라고 청했다.<sup>54)</sup>

이어서 「중사」를 折受 문제에 활용했던 사례들을 살펴보자.

折受의 규정은 옛날의 것이 아니고, 임진란 후로 땅은 넓고 백성은 적은데 왕자와 공주가 서로 잇따라 出閣하기 때문에, 故 相臣 韓應寅이 호조 판서가 되어 난리 전에 百官에게 宣飯할 것과, 倭人을 接待할 것에 魚鹽·柴炭이 나오는 땅으로써 分割하여 주기를 청한 것인데, 그대로 그릇된 규정을 이루었습니다. 顯廟朝에 이르러 다섯 公主가 出閣하자, 折受가 점차 넓어졌는데, 三司에서 論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중략) 當宁 경신년에는 廟堂에서 禁畝를 펴고 임자년 이후에 절수한 것은 모두 혁파할 것을 청하였으나, 또 다시 정지되고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불어나는 것이 임자년에 비교할 수 없고 절수가 많아진 것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요즘 백성의 호소나 臺閣의 논쟁으로 인해 혹은 還給한 것이 없지 않으나, 그 형세는 民田에 침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다음에 「중사」의 경사가 있고 新宮이 많이 나가게 되면, 모르긴 해도, 어느 곳을 절수해서 民田을 侵奪하는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臣은 절수를 혁파했으면 합니다.<sup>55)</sup>

53) 정조 2년 무술(1778) 5월 2일(신유) 3번째 기사. 빈어를 간택하라고 명하다. “嗚呼! 四百年宗社之托, 惟在主上一身, 而春秋幾近三十, 螽斯之慶, 尙今晚晚.”

54) 정조 4년 경자(1780) 2월 26일(을해) 1번째 기사. 이조 판서 김중수가 홍국영을 귀양보낼 것을 청하다. “嗚呼! 殿下春秋鼎盛, 而尙未有螽斯之慶, 舉國臣民之憂悶鬱, 小大同情. (中略) 伏乞聖上, 勿復遲疑, 夫奮乾剛, 亟命有司, 施以流竄之典, 以洩輿人之憤.”

55) 숙종 14년 무진(1688) 4월 23일(을축) 1번째 기사. 절수에 관한 상소와 교서. “折受之規, 非古也. 壬辰亂後, 地曠民少, 而王子公主, 相繼出閣, 故故相臣韓應寅爲戶判, 請以亂前, 百官宣飯, 倭人接待魚鹽柴炭所出之地, 割而與之, 仍成謬例. 及至顯廟朝, 五公主出而折受漸廣, 三司論之, 不得. (中略) 當宁庚申, 廟堂請申禁令, 悉罷壬子以後折受, 而又復格而不行, 目今人物繁殖, 非比壬子, 折受夥多, 日以益甚, 近因民人之呼

숙종 14년(1688), 영의정 南九萬(1629~1711)은 왕실의 왕자와 공주들이 私宮을 짓고 나가서 살 때에 俸祿으로 土地 등을 떼어 주는 일 즉, 折受를 혁파할 것을 상소했다. 땅은 넓고 왕자와 공주가 적을 때 정해진 법칙이 당시까지 규정처럼 행해지면서 折受를 위해 民田을 침탈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상소에서 남구만은 “이 다음에 「종사」의 경사가 있고”라며 「종사」를 이용해서 왕실의 왕자와 공주가 늘어나는 것을 비유했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淸宮와는 달리 여기서 활용한 「종사」의 경사는 國庫를 낭비하고 民田을 침탈하는 계기가 되는 일로 풀이될 수 있다.

이 외에 숙종 26년(1700)에는 영의정 徐文重(1634~1709)이 “宣廟朝에서는 「종사」의 경사가 많았으나, 出閣하기 전에는 일찍이 미리 第宅을 세우는 일이 없었고, 또 왕자나 공주가 없는 후궁은 원래 제택을 설치한 일이 없었으며, 仁祖朝에서도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마는, 근래의 처분은 先朝 때와는 아주 다릅니다.”라며 왕자나 駙馬 등이 새로 궁실을 짓는 일을 반대하기도 했다.<sup>56)</sup>

을해년 무렵에 신이 史官으로서 入侍할 적에 그 때의 대신이 宮家의 折受에 관한 폐단을 갖춰 진달하고, 이어 ‘이 뒤로는 영구히 질수하는 규정을 혁파하고 호조에서 銀貨를 일정한 격식대로 갈라 보내어 田畝를 買受하는 자본으로 삼도록 할 것’을 청하여 즉시 운허를 받았는데, 그 뒤에 삼가 듣건대, 여러 宮家들이 이미 호조의 은화를 받고도, 그 질수한 것을 그전대로 폐하지 않아서 민간의 폐해가 예전대로라고 했

訴, 臺閣之爭論, 或不無還給者, 而其勢不得不及民田. 今後齋斯有慶, 新宮多出, 則未知何處折受, 而得無侵奪民田之患乎? 臣謂折受可罷也.”

56) 숙종 26년 경진(1700) 10월 22일(신사) 2번째 기사. 궁궐 신축·수령 임명·과옥죄인 처벌 등에 관한 대신들의 논의. “宣廟朝齋斯之慶說說, 而未出閣前, 未嘗預建第宅, 且後宮之無王子·翁主者, 元無設置第宅之事, 至仁祖朝, 亦然矣, 近來處分, 與先朝大異.”

으니, 진실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새로 後宮을 封爵하셨으니 앞으로 分媯하신 다음에는 왕자나 옹주 사이에도 또한 마땅히 궁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오래 시골에 있을 적에 매양 外方 백성을 만날 적이면 국가에 「중사」의 경사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니다. 비록 어리석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어찌 국가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경사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이러했으니, 대개 평소에 小民들이 절수에 있어 시달림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 민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뒤로는 한결같이 先王朝에 정해진 격식을 준행하여 영구히 절수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家舍에 있어서도 신이 듣건대 宣祖朝에는 왕자나 駙馬들의 宮家가 모두 閭閻의 사대부의 집 모양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궁가들이 지금도 많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만일에 따로 中使를 내보내어 그 모양대로 지어 주도록 한다면, 사치스럽고 크게 할 염려도 없게 되고 또한 福을 기르는 방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sup>57)</sup>

영조 2년(1726)에 영중추부사 閔鎭遠(1664~1736)은 영조가 새로 후궁을 봉작하자 宣祖朝의 격식을 준행해서 절수를 금하자고 했다. 그는 “매양 外方 백성을 만날 적이면 국가에 「중사」의 경사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니다.”라며 절수에 대한 백성들을 반감을 전했다. 숙종조부터 문제가 되었던 왕실의 절수 문제가 영조 초기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도 「중사」는 ‘자손의 번영’이란 의미에서 파생되어 ‘折受의 원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57) 영조 2년 병오(1726) 11월 21일(기유) 1번째 기사. 주장에서 민진원이 색육에 대한 경계와 궁가의 절수 폐단에 대해 아뢰다. “乙亥年間, 臣以史官入侍. 其時大臣, 備陳宮家折受之弊, 仍請此後永罷折受之規, 自戶曹以銀貨定式割送, 以爲田畝買取之資, 卽蒙允可, 而其後伏聞諸宮, 旣受戶曹之銀貨, 而折受則依前不廢, 民弊依舊云, 誠爲慨然. 卽今新封後宮, 前頭分媯後, 王子翁主之間, 亦當有宮矣. 臣久在鄉曲, 每見外方之民, 不願國家有龔斯之慶. 雖是愚氓, 豈不知國家子姓蕃衍之爲慶幸, 而猶尙如此, 蓋可見常時小民之困於折受, 至於此極矣. 豈不可悶乎? 此後則一遵先朝定式, 永勿折受宜矣. 至於家舍, 臣聞宣廟朝王子、駙馬之宮, 皆如閭閻士夫家制樣. 其時宮家, 至今多有存者. 若別遣中使, 依其樣造給, 則可無侈大之患, 而亦可爲養福之道矣.”

## 4. 나오는 말

『시경』·『주남』의 다섯 번째 작품인 「중사」는 주희로부터 “后妃가 妬忌하지 않아 자손이 많았으므로 여러 妾들이 螽斯가 한 곳에 떼를 지어 살면서 조화롭게 모여 자손이 많은 것을 가지고 비유해서 이러한 德이 있으면 이러한 福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문인들은 주희의 이 같은 평가를 수용해서 주로 ‘자손의 번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사」를 활용했다. 문체별로 보면 상소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冊文이나 敎書類·碑誌類·詩類 등의 순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사」는 ‘자손의 번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의 후계 문제와 折受 문제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때 활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명종·경종·영조·정조 연간에 「중사」를 활용해서 후계 문제를 논의한 여러 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실의 왕자와 공주들이 私宮을 짓고 나가서 살 때에 俸祿으로 土地 등을 떼어 주는 일인 折受는 이 때문에 民田을 침탈하는 일이 잦았으므로 숙종 때부터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숙종과 영조 연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중사」가 활용된 예들이 있었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시경』의 개별 작품들이 우리 문인들에게 활용된 용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관저」·「녹명」·「청묘」·「갈담」·「권이」·「규목」·「중사」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했는데, 이 중 「관저」·「녹명」·「권이」·「규목」은 한 편의 소논문으로 완성되었고 「청묘」와 「갈담」은 한 편의 논문이 되기에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자료만 정리한

상태로 남겨놓았다.

『시경』의 개별 작품을 정리하는 작업 중 많은 작품들이 한 편의 논문이 되기에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논문으로 게재된 작품들과 자료만으로 정리된 작품들을 모두 모아 일정 분량이 되면 우리 문인들이 『시경』을 활용한 용례를 담은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인들이 『시경』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누구나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고려시대 史料 DATABASE(<https://db.history.go.kr/>)

문연각 사고전서 전자판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金壽恒, 『文谷集』, 한국문집총간 133, 民族文化推進會, 1994.

金宗直, 『佔畢齋集』, 한국문집총간 12, 民族文化推進會, 1988.

柳夢寅, 『於于集』, 한국문집총간 63, 民族文化推進會, 1991.

李觀命, 『屏山集』, 한국문집총간 177, 民族文化推進會, 1996.

李敏敘, 『西河集』, 한국문집총간 144, 民族文化推進會, 1995.

李穡, 『牧隱集』, 한국문집총간 4, 民族文化推進會, 1989.

李承召, 『三灘集』, 한국문집총간 11, 民族文化推進會, 1988.

李廷龜, 『月沙集』, 한국문집총간 70, 民族文化推進會, 1991.

徐居正, 『四佳文集補遺』, 한국문집총간 11, 民族文化推進會, 1988.

宋相琦, 『玉吾齋集』, 한국문집총간 171, 民族文化推進會, 1996.

黃俊良, 『錦溪集外集』, 한국문집총간 37, 民族文化推進會, 1988.

- 김민정(2021), 「『本草綱目』의 『詩經』 引用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경(2022a), 「柳喜 詩經論에 반영된 해석과 접근의 재구조화」, 『韓國漢文學研究』 85집, 한국한문학회, 385~429면.
- 김수경(2022b), 「瓶窩 李衡祥 詩經 독법의 확장성과 다층성」, 『漢文學論集』 62집, 근역한문학회, 113~144면.
- 김진희(2022), 「해강 현언시에 나타난 飛鳥 意象 표현의 化用 고찰 — 『시경』과 『초사』의 화용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108집, 중국어문연구회, 129~153면.
- 박재희(2021), 「『詩經』 愛情詩 研究」,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하나(2022), 「『詩經』 속 女性의 地位에 관한 小考」, 『中國語文論譯叢刊』 5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3~47면.
- 신정근(2022), 「中庸 미학에서 生生 미학으로 -『시경』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110집, 동양철학연구회, 7~34면.
- 이상보(1999), 「한국에서 시경을 받아들인 역사를 살핌: 서지학의 방법을 중심으로」, 『시경연구』 1권, 한국시경학회, 15~23면.
- 이상봉(2020a), 「『關雎』의 수용 양상과 주요 논의에 관하여-조선시대 문집과 실록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56집, 근역한문학회, 2020, 199~224면
- 이상봉(2020b), 「『시경』 〈鹿鳴〉의 수용 양상에 대하여 : 조선시대 한문산문과 실록류를 중심으로」, 『동방학』 43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43집, 2020, 153~178면
- 이상봉·유영옥(2022a), 「『詩經』 「卷耳」의 활용양상에 대해서 -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63집, 근역한문학회, 2022, 55~75면.
- 이상봉·유영옥(2022b), 「『詩經』 「樛木」의 활용양상과 몇 가지 논의에 대해서 -史料와 문집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63집, 동양한문학회, 2022, 155~181면.
- 이욱진(2022), 「『시경』 「蟋蟀」의 서술 구조와 교술적 속성」, 『외국문학연구』 8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93~117면.
- 정상홍 옮김, 『시경』, 을유문화사, 2019.
- 정원호(2013), 「『朝鮮王朝實錄』의 『詩經』活用例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향춘(2022), 「계곡 장유 시론 연구 -『시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90집, 동방한문학회, 141~178면.
- 진교초·윤윤진(2022), 「『東文選』漢詩對『詩經』意象的借用與創新」, 『어문논총』 92집, 한국문학언어학회, 173~191면.
- 차영익(2022), 「미수 허목의 시경관 연구」, 『泰東古典研究』 48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9~35면.

About the Acceptance Pattern of 『The Book of Odes(詩經)』’s  
「Locust(螽斯)」:  
Focusing on Historical Sources and Literary Works

Lee, Sang-Bo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how Korean writers accepted 「Locust(螽斯)」, the fifth work of 『The Book of Odes(詩經)』’s 「Junam(周南)」. Ju hi(朱熹) said about 「Locust(螽斯)」, “Several royal concubines compared Locusts to living in a herd and having many offspring in harmony and they said that it is natural to have this kind of blessing if you have this kind of virtue.” Our writers accepted Ju hi(朱熹)’s evaluation like this and used 「Locust(螽斯)」 mainly in terms of ‘Prosperity of descendants’.

By style, it was found that it was most frequently used in appeals(上疏文), and that it was used in the order of Chaegmun(冊文-A letter given by the king when installing the crown prince, concubine, etc.), Gyoseo(教書-Order issued by the feudal lord), Biji(碑誌-Inscription on stone), and poems.

Since 「Locust(螽斯)」 had an image of ‘prosperity of descendants’, it was also used when discussing sensitive issues such as the issue of the succession of the royal family and the issue of Jeolsu(折受-Received rice fields or tax from the state).

So, in the years of King Myeongjong, King Gyeongjong, Yeongjo, and King Jeongjo, several examples were found in which succession issues were discussed using 「Locust(螽斯)」.

Jeolsu(折受) often invaded the people’s fields, so it became a problem from the time of King Sukjong. Therefore, in the years of King Sukjong and King

---

\* Lectur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E-mail: krishrama@daum.net

Yeongjo, there were examples in which 「Locust(螽斯)」 was used in this regard.

### **Key Words**

The Book of Odes(詩經), Locust(螽斯), Junam(周南), acceptance pattern, Confucian Classics

논문접수일: 2023. 5. 12, 심사완료일: 2023. 6. 9, 게재확정일: 2023. 6. 30.